

아이들이 발견한 우리동네 양동 아름다움 ‘한 자리에’

서구문화원·양동초, 학생 생활문화 프로젝트 전시 광주천·시장·골목 탐방...사진·타이포그래피 등 선보

아이들의 시선으로 기록한 양동의 풍경과 골목 이야기가 전시로 펼쳐졌다. 학생들이 직접 동네를 걷고 관찰하며 남긴 사진과 그림, 글자와 질감의 기록들은 익숙했던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생활문화 이야기로 완성됐다.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과 광주양동초등학교(교장 인공진)가 함께한 2026 학생 생활문화 프로젝트 ‘우리가 보는 서구-양동초 편’ 결과 전시회가 최근 양동초등학교 특별공간에서 열린 것.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주변 마을을 직접 걸으면서 기록한 참여형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광주천과 양동시장, 양동골목 일대를 탐방하며 사진과 그림, 타이포그래피, 프로타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네의 풍경과 감각을 기록했다. 특히 ‘양동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학생 각자가 사리지지 않았으면 하는 장소와 장면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학생들이 조별로 제작한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비롯해 광주천 자연의 질감을 표현한 프로타주 작업, 양동시장 풍경을 담은 파노라마 작품 등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단순히 작품을 출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 설치와 디스플레이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또 자신이 기록한 작품을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도슨트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기록의 주체로서 동네 이야기를 스스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서구문화원과 양동초는 오는 20일 열리는 학부포 공개수업에서도 이번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학생들의 기록 활동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며 생활문화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정인서 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록을 통해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동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양동초 5학년 학생들은 학생 생활문화 프로젝트 ‘우리가 보는 서구-양동초 편’에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총 8회에 걸쳐 광주천과 양동시장, 양동골목 일대를 탐방하며 사진과 그림, 타이포그래피, 프로타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네의 풍경과 감각을 기록했다. 사진제공=광주 서구문화원

“나도 할 수 있다”...영광발달장애인들 백두산 등반

광주·전남사랑의열매 후원 생애 첫 해외여행 참여 두만강·장백폭포 등 체험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 속에 전남 영광의 발달장애인들이 생애 첫 해외여행이자 백두산 등반에 성공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영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들의 백두산 해외 체험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한그룹 김원만 회장의 후원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지역사회의 나눔이 발달장애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여행은 한 이용자의 “비행기를 타고 싶었다”는 소망에서 출발했다. 센터는 단순 체험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백두산 등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일정에는 만 13세부터 7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발달장애인과 교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참가자들에게는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교사들은 1대 2 돌봄 체계를 구축해 이동과 안전,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했다.

센터는 해외 일정에 앞서 여수에서 1박 2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전 적응 훈련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단체 생활과 이동 동선을 미리 익히며 협동심과 안전 대응 능력을 키웠고, 이는 실제 해외여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백두산 현지 일정은 기상 변수 속에서도 의미 있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전남 영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들이 두만강 일대를 산책하며 실렌 가득한 첫 해외여행의 추억을 쌓았다. 사진제공=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두만강 일대를 산책하며 첫 해외여행의 설렘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폭설로 천지관람이 취소됐지만 안전을 우선해 공원 산책과 휴식 중심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셋째 날에는 천지 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북과 코스를 따라 장백폭포 인근까지 오르며 백두산의 웅장한 자연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백산수 공작 견학과 용두재 우물 관광 등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성취의 의미를 몸소 경험했다는 평가다.

오세현 영광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경험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번 여행이 발달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내해영 목포대 교수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우수논문상’

국립목포대학교 생명·의과대학원에 산리학부 내해영 교수(사진)가 식물공장 기반 수박 접목묘 생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논문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생물환경조절학회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학술적 우수성과 연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식물공장 시스템에서 고품질 수박 접목묘 생산을 위한 최적 대기 온도’로, 생물환경조절학회 제34권 제4호(2025년 10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식물공장 시스템 내 대기 온도 조건에 따른 수박 접목묘의 생육 특성과 품질 변화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증육 묘 생산을 위한 최적 환경조건을 제



시한 연구다. 특히 묘의 균일성과 생육 안정성 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해당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스마트농업 기반 육묘 기술 발전과 안정생산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해영 교수는 “이시기후로 인해 안정적인 우량묘 생산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육묘 및 환경 제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표=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시는 제45회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아 ‘선생님을 소중하게, 아이들을 행복하게’를 주제로, 18일까지 ‘보육활동 보호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다.

광주과학관, ‘제2회 인공지능 혁신대상’ 수상

생활밀착형 교육 모델 선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농산어촌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과 기관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에서 AI혁신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전환, 국민 체감형 인공지능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 기반 인공지능 교육 확산과 생활 밀착형 인공지능 활용 모델을 선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그동안 지역과 계층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



국립광주과학관은 농산어촌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과 기관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에서 AI혁신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정구 관장(가운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국립광주과학관

층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성인, 기관 구성원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형 인공지능 확산 모델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립광주과학관은 ‘농산어촌 AI 디지털 문해력 제고 사업’을 통해

리 정보 확인, 생생한 인공지능 체험 등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특히 ‘내 손안의 AI 비서’, ‘추억 동영상 만들기’, ‘건강 정보 확인하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전남 곡성군과 무안군 등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거점 시설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농산어촌형 인공지능 문해 교육의 현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사회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넓히기 위해 ‘AI 과학강사 양성과정’, 청소년의 자기주도형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탐구활동 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수강과 자격 취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관 내 디지털 전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이정구 관장은 “이번 수상은 국립광주과학관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추진해 온 인공지능 확산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인공지능 교육과 과학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 보육활동 보호 릴레이 캠페인

스승의날 맞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존중문화 조성

광주시는 제45회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아 ‘선생님을 소중하게, 아이들을 행복하게’를 주제로, 18일까지 ‘보육활동 보호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보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메시지 포스터를 활용한 ‘릴레이 사진 인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육활동 보호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알림장 앱(키즈노트) 등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자로 나선 국지공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만큼이나

교사의 권리와 안전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이번 캠페인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 센터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남정미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광주시는 캠페인 외에도 보육교직원 안전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와 통한 보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추진 및 법률·심리 상담 지원, 보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등이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보육교사가 존중받을 때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gwangnam.co.kr